

1 지원취지 및 접수현황

○ 지원취지

2020년까지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던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민간공연장에 방점을 찍고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이하 민간소공연장지원)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 소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비 및 공연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공연장 당 1천만 원 정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에 맞춰 지원금액을 신청하였던 예년과 달리, 지원규모가 축소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공연장도 다소 있었습니다. 지원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 내에서도 다각적인 고민이 있었으나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공연장이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마땅하다는 판단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지원 분야인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외에도 장르나 형식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예술적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원예술 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접수현황

공연장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공모에는 총 234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였던 전년도 2차 추가공모 사업 신청건수인 219건 대비 약 7%(15건) 상승한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신청 공연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분야의 경우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전 분야에서 신청한 가운데 연극이 234건 중 156건으로 전체 지원신청 건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234건 중 204개 공연장이 2020년 동 사업에서 최소 1회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연장인 바, 꾸준한 지원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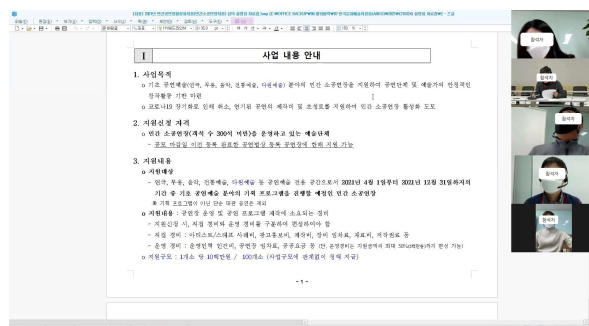
2 지원대상 선정 과정

지원대상 선정은 1) 심의위원 대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 2)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3) 온라인 지원심의 회의 개최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의위원 대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 1.5단계 이상으로 지속됨에 따라 지원심의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는 없지만 심의방향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공통된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및 회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3. 24.(수) 개최하였으며 이때 참여하는 심의위원은 공연예술 분야 및 공연장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광역문화재단 소속 간부급 직원 17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지원내용과 더불어 지원신청 현황, 심의계획 및 방향성을 심의위원에 설명하였고,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개별 심의위원의 주관을 최소화 하고자 적정한 평가 수준과 판단 근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반영되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전 설명회 모습>

2)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는 향후 공연장 운영 계획에 있어 구체성과 지원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40%), 예산 투입의 적정성(30%),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30%)를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각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234건의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점하였고 평가 결과와 검토의견을 사업 주관기관인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전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온라인 지원심의 회의

심의위원별 평가 결과를 모두 취합한 뒤 4. 1.(목), 온라인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당일에는 전체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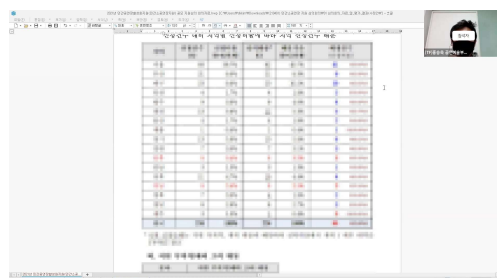
이번 민간소공연장지원 사업은 10억 원 예산으로 100개 소공연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원 가능한 수의 2배 이상 지원신청이 접수되어 전체의 약 42%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신청 규모 대비 지원 가능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당초 지원취지가 지원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좀 더 많은 공연장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음을 고려하여 지역 쿼터를 배분해 지역별로 최소한의 지원건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고, 전체 신청건수 대비 지역별 신청비율에 따라 지역 선정건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7개 시·도별 지원신청 접수 결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신청건수	93	21	23	4	9	13	4	1	13
비율(%)	39.7	9.0	9.8	1.7	3.8	5.6	1.7	0.4	5.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신청건수	7	8	3	11	8	7	6	3	234
비율(%)	3.0	3.4	1.3	4.7	3.4	3.0	2.6	1.3	100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단체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혹은 본 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99건의 신청단체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1,000만 원씩 지원되며, 다만 신청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제출한 단체의 경우 신청액 그대로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심의 회의 모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민간소공연장지원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 소공연장에 프로그램 제작비 및 공연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동률이 높은 대형 공연장에 비해 한 공간에서 공연을 제작, 연습하고 실연까지 하는 방식으로써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공연장이 각각 어떠한 역할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그 밖의 주어진 여건 및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동안의 공연장 운영실적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예술인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 기지로서의 성격이 엿보이는 공연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공연건수나 일수 등의 실적이 많더라도 대부분 대관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공연장은 운영주체의 추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이 부족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공연 구성이기 보다는 학원 또는 동호인 발표회 위주의 생활문화 성격에 가까운 공간 역시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소공연장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99개 공연장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 상 번거로움을 덜고자 e나라도움 정산을 대신해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과 프로그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공연장활성화TF에서는 개별 공연장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서면·현장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기억될 것 같은 긴 한 해를 보내고 2021년을 맞은 지금, 예술가가 관객을 만나는 방식도, 공연을 대하는 관객의 자세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연장만이 가진 그 에너지가 우리를 다시 공연장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